

SKT “이제 목소리로 개인 인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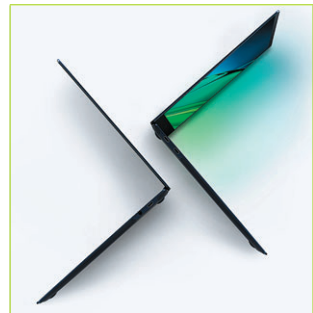


MOU를 체결한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S사업담당(왼쪽)과 마이클 휴즈 핀드롭 부사장. 사진제공 | SK텔레콤

SK텔레콤은 음성기술 기업 핀드롭과 인공지능(AI) 컨택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음성인증은 이용자의 고유 음성을 판별해 추가 인증 없이 간단한 음성만으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AI 컨택센터의 경우 음성인증 기술 활용 시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 핀드롭의 음성인증 기술은 최대 정확도 98% 수준이며, 대화 음성으로 성문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버라이즌과 BT 등 다수 글로벌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녹음된 목소리나 비슷한 목소리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뛰어난 보안성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이번 상품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상품이라 별도 구축기간 없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음성인증 AI를 콜센터는 물론, 출입통제와 바이오인증 보안, OTT 셋톱박스, 키오스크 등 개인 인증이 필요한 기기로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전자, 역대 가장 얇은 ‘LG 그램’ 출시



LG전자가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LG 그램’을 출시한다. 신제품(15Z90RT·사진)의 두께는 역대 그램 가운데 가장 얇은 10.9mm다. 같은 화면 크기의 그램보다 4.4mm 더 줄었다. 무게는 990g으로

15.6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1kg을 넘지 않는다.

제품 외관 소재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난 우추선이나 경주용 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되는 ‘마그네슘합금’을 적용했다. 인텔 최신 13세대 프로세서와 최신 4세대 저장장치(SSD)를 탑재했다. 기존 제품(LPDDR4X)보다 성능은 40%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20% 줄인 최신 저전력 메모리(LPDDR5)를 적용했다. 디스플레이는 풀 HD 올레드다. 출하가는 224만 원(16GB·256GB·OS 탑재 기준)이며, 사양별로 다르다. LG전자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강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증상 거의 없어 1기 생존율 90%…20대부터 검진 중요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암이다.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가 함몰되고, 유방의 피부가 부어올라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초기 발병 단계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다. 유방의 모양 변화나 피부 변화, 멍울, 분비물 등 비교적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접어들어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유방암 검진은 20세 이상은 3년 간격으로, 40세 이상은 1년 간격으로 매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가족력, 조기 초경이나 늦은 폐경, 출산 경험 및 모유 수유 경험에 없는 경우, 피임약 등의 여성호르몬제 복용, 비만, 알코올, 카페인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 기본 검진은 유방촬영술(X-ray)과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 X-ray 검사는 우수한 감별력으로 초기 유방암 진단 시 유용하다. 유방이 치밀한 아시아 여성들은 작은 유방암까지 찾아낼 수 있는 초음파 검사나 X-ray와 같이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은 초기에 해당하는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중기인 3기로 접어들면 생존율이 70%로 크게 떨어진다. 말기(4기)에는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선 정기검진이 최선의 방법이다.

천안 유방외과 미유외과의원 이승현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롯데홈쇼핑, 고객·임직원과 소통 경영 강화

‘벨리 파티’ ‘사내모델’…고객·임직원 참여 확대

벨리곰 NFT 홀더 위한 파티 진행 시즌2 로드맵 발표 등 비전 제시 전 임직원 대상 사내 홍보모델 선발 ‘루시 서포터즈’ 등 신사업 마케팅도

롯데홈쇼핑이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를 늘리며 소통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고객의 경우, 최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벨리곰 NFT(대체불가토큰) 홀더를 위한 ‘벨리 파티’가 눈에 띈다. 벨리곰 NFT홀더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벨리곰 NFT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 벨리곰 커뮤니티 전용 포인트 신설 등 몰입형 커뮤니티 구축, 핫딜상품 구매·한정판 굿즈 제공 등 등급별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글로벌 NFT 제휴를 통한 해외 진출 등 벨리곰 NFT 시즌 2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벨리곰 NFT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홀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벨리곰 NFT의 가치는 홀더들, 곧 커뮤니티의 힘이며, 앞으로 벨리곰 NFT의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롯데홈쇼핑과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14일에는 서울 양평동 소재 본사에서 식품 프로그램 ‘테이스티:맛’ 출시 2주년 기념 고객 초청 특별 생방송을 진행



롯데홈쇼핑이 고객과 임직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소통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내 홍보모델들, 벨리 파티, ‘테이스티:맛’ 출시 2주년 기념 고객 초청 특별 생방송(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롯데홈쇼핑

했다. ‘테이스티:맛’은 현역 최고의 셰프들과 협업해 유명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를 소개하는 신개념 식품 전문 프로그램이다. 2021년 코로나19로 외식 기회가 줄고 집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고급 레스토랑 콘셉트로 제작한 세트에서 최현석 셰프가 인기 상품 ‘프라임 스테이크’를 직접 조리해 참여 고객 20명에게 제공했다. 또 재즈밴드 ‘튠어라운드’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등 디너쇼 형식으로 펼쳐졌다. 정

윤상 롯데홈쇼핑 방송제작부장은 “향후 고객 니즈에 맞는 프리미엄 식품 및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TV홈쇼핑을 대표하는 식품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임직원과 함께 신사업 마케팅

기업 활동에 임직원 참여도 늘고 있다. 13일 위촉식을 진행한 사내 홍보모델이 대표적이다. 공식적인 기업 활동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의 애사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원 및 추천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남녀 5명씩 총 10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직원이 지원했으며, 친근감과 신뢰감을 고려해 최종인원을 선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언론 홍보용 사진촬영을 비롯해 브이로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콘텐츠 홍보 및 자체 상품 기획 등 신사업 마케팅에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의 사내 팬클럽 ‘루시 서포터즈’가 대표적이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NS 구독자 7500명의 셀럽, 여행 크리에이터, 룩북 모델 등 부캐릭터 활동이 활발한 임직원 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시’ 관련 콘텐츠 기획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MZ세대 전용 상품 개발을 위한 신상품 품평회 ‘민지(MZ)네 반상회’도 주목받고 있다. 최신 트렌드에 밝은 2030 직원 5명을 ‘임직원 고객’으로 선발했다. 매월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상품 제안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협의하며, 올 상반기 내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박재홍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은 “임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재능과 개성을 갖춘 임직원의 기업 홍보 활동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쌍용차 ‘토레스 EVX’ 세계 최초 공개…‘2023서울모빌리티쇼’ 31일 개막

현대차·포르쉐 등 총 23개사 참여 기아 ‘EV9’ 실차 전시…BMW ‘iX5’도 다양한 모빌리티 시승 체험장 운영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가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서울모빌리티쇼의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열리며, 총 전시규모는 5만 3541㎡로 지난 행사(2만6310㎡)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다. 전 세계 10개국 16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토레스 EVX 세계 최초 공개, 기아 EV9 전시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 BMW,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알파로메오, 이네오스 그레나디에(차보모터스), 제네시스, 테



‘2023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쌍용차 ‘토레스 EVX’,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 EV9, BMW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모델인 iX5 하이드록센 프로 토타입(왼쪽부터 시계방향).

슬라, 포르쉐 등 12개 완성차 브랜드, 친환경 경차 8개사, 이륜차 3개사 등 총 23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4년 만에 서울모빌리티쇼에 복귀한 쌍용차는 정통 전기 SUV 모델 토레스 EVX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토레스 EVX는 국내 최초의 중형급 전기 SUV로 경쟁 전동화 모델 대비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오프로드 성능을 갖춰 캠핑 및 차박 등 레저 활동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기아에서는 대형 전기 SUV EV9 실차

를 전시한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아의 두 번째 전기차이자, 기아 전동화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BMW에서는 첫 수소연료전지차인 BMW iX5 하이드록센과 한정판 순수전기 모델인 MINI 일렉트릭 레슬루트 에디션, BMW 모토라드 100주년 기념 모델 ‘R 18 100 Years’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1종을 포함해 총 24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전시장 내부에서는 참관객이 전기 바이크, 전기자전거 등을 타볼 수 있는 ‘이 모빌리티 시승회’와 교통안전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외부 별도 공간에서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제네시스 등의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하는 모빌리티 체험 시승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짜릿한 전투”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사전예약

독보적 그래픽 연출…4월 정식 출시

위메이드의 기대작 ‘나이트 크로우’가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16일 서울 역삼동 아모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이트 크로우의 사전예약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출시일은 4월이다.

이 게임은 글로벌 히트작 ‘V4’ 개발을 총괄한 손민석 대표와 ‘히트’ ‘오버히트’를 개발한 이정욱 대표가 함께 설립한 매드엔

진이 제작한 크로스플랫폼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MMORPG)이다. 개발을 총괄한 이선호 매드엔진 PD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공감각까지 자극하는 진짜 액션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소개했다.

게임은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다. 이용자는 길드 ‘나이트 크로우’의 일원이 돼 거대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언리얼 엔진5로 극사실적 광원 연출과 독보적 그래픽의 전장을 구현했다. 현실적 액션을 통해 전투 쾌감도 극대화했다. 그 밖에도



“나이트 크로우”를 소개하고 있는 이선호 매드엔진 PD. 사진제공 | 위메이드

글라이더를 활용해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전투, 입체적이고 광활한 전장에서 펼쳐지는 1000명 단위의 대규모 전쟁 ‘격전지’ 등도 즐길 수 있다.

송모현 위메이드 게임플랫폼 부문 사장은 “좋은 개발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랜 기간 만든 초대형 MMORPG다”며 “앞으로도 게임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민석 매드엔진 대표도 “나이트 크로우는 오랜 기간 성공적인 MMORPG를 개발해 왔던 개발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위메이드의 서비스 경험과 맞물려 완성된 작품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 게임 사전예약페이지, 네이버 게임라운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한정판 아이템 패키지를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